



배경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19-20





제22장 예루살렘 회의 결의 사항

Jesus

- > 이방선교에서 문제
- > 예루살렘 회의 결과





1. 이방 선교에서 문제

Jesus

혼합주의

이질적인 철학 사상이나 종교적 교의/의례들을 절충
내지 통합하려는 절충주의.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



1. 이방 선교에서 문제

Jesus

다신교적 배경

메시아,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등 중요 기독교 개념

→ 통속적인 신비 개념으로 곡해

기독교 윤리관

: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율법 준수 필요하다고 생각





1. 이방 선교에서 문제

Jesus

할례 -1

삼마이 학파: 할례 꼭 필요

힐렐 학파: 이방인들의 세례는 할례 없이 가능.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간의 갈등: 할례문제.

베드로의 어중간한 태도를 바울은 책망 (갈2:11-14).

바울: 이방인들에게 할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 전파.



1. 이방 선교에서 문제

Jesus

할례 -2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11~14)





2. 예루살렘 회의 참석자들

Jesus

과정

예루살렘 회의 참석자들

: 안디옥 교회 대표, 바나바, 바울.

예루살렘교회 대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예루살렘 회의 결정과 의미

- ❖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방인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열게 되었던 첫 교회 공의회.
- ❖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와 음식규례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복음을 반대하며 문제 제기.
- ❖ 베드로를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이해라고 공포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유대 음식규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의결.
- ❖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우상제물과 피, 그리고 음행을 금하도록 가르치며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힘써달라고 이방교회 지도자들 권면.





3. 예루살렘 회의 결정 요약과 의의

Jesus

할례와 음식규례가 이방인 개종자들의 준수 사항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 간음, 피 흘리는 죄를 금할 것을 경고하고 명시함 .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예루살렘 회의, 곧 첫 교회 공의회가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기반을 마련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회의가 되었다.

